

전남도교육청 “학교혁신 할 맛 나네”

150명 대상 학교혁신 실행연수 연찬회

22개 시·군별 300여명 학교혁신지원단 육성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교 혁신 전면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7월 30일 전남여성가족단과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학교혁신 실행연수 연찬회를 실시했다.

학교혁신 실행연수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혁신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스스로 찾게 도와주는 과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모든 학교가 함께 학교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학교혁신 전면화를 추진

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학교혁신을 실천 하려 해도 내용과 방법을 몰랐던 교직원들에게 기쁨에 담비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연수는 △학교조직 진단 △학교교육 과정 개선 짜기 △교육활동 중심 지원체제 구축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생 중심 수업과 수업나눔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자치 활동 △스마트 교육 공동체 △학습자 중심 공간 혁신 등 8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위해 20명의 학교혁신 실행연수 개발단을 조직해 운영해왔다.

김철환 교사(고흥 포두중)는 “학교조직문화 진단과 학교공간 혁신 두 개 주제에 참여했는데, 우리 학교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학교 공간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전남 도내 모든 학교가 학교혁신을 실천하는 것을 돋기위해 권역별 학교혁신 실행연수 연찬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22개 시·군별로 300여 명의 학교혁신지원단을 집중 육성해 학교의 요청에 따라 실행연수와 컨설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가자 도서관으로 배우자 도서관과 함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하반기 성인문화강좌 운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권래용)이 오는 8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반기 성인문화강좌 총 7개 강좌를 운영한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기초회화교실 ▲서예교실 ▲한글교실, 신체 유연성 신장 및 자세교정을 위한

▲요가교실, 이를 담고 개성있는 손글씨 ▲멋글씨! 캘리그라피, 드론을 활용한 음용기술 습득 ▲성인을 위한 드론임문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를 참조하거나 운영과로 문의(☎062-380-8853-5)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권래용 관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성인문화교육을 통한 자아실현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반기 강좌를 마련했다”며 “문화예술, 인문교양, 성인문화예술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를 참조하거나 운영과로 문의(☎062-380-8853-5)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함께하는 마레캠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원장 장기석)이 7월 29~30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하반기 1차 ‘가족과 함께 하는 마레캠프’를 열었다.

올해 전반기에 두 차례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이루어진 1차 ‘가족과 함께하는 마레캠프’는 교직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70여 가족에게 참가신청을 받아주첨정으로 25기(100여 명)을 선정했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이번 마레캠프는 교직원 가족들이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마레캠프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지역적 특성(고흥군 소재)을 감안해 힐링여행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해양체험 활동, 수상안전교육, 레크리에이션, 도자기 제작 등으로 진행됐다.

해양수련원 장기석 원장은 “이번 하반기 어려운 가족캠프를 통해 우리 원의 특화된 해양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주 원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학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조인호 기자

“생각이 쑥쑥! 꿈이 영글어 가요”

전남국제교육원, 다문화 학생 학습 놀이방 운영



전남도국제교육원(원장 양병주)이 7월 30일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종교학생·외국인 학생 25명이 참가하는 ‘2019 학습놀이방’은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력 향

상, 한국문화 이해를 통해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교정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전문 강사와 담임교사의

모둠 별지도 아래 학생들의 유통비 학습 습관 형성과 학습 동기유발을 위한 학습 코칭·정의교실, 놀이수학, 그림책이랑놀자 등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텀블링, 전통놀이 체험 등의 협동심 함양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이해 프

로그램도 제공된다.

캠프에 참가한 해남 계곡초 4학년 학생은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해 알게 됐고, 수학과 독서에 재미와 관심이 생겼다.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뛰어들면서 주인이 쌓이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양병주 원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학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조인호 기자

순천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총력

순천시·전남도·전남TP 등 민관협의체 구성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순천시와 함께 5G,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 네이버가 건립 추진 중인 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네이버는 3,400억 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시에 제2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전자파 발생 우려 등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모여 회의를 갖고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치전략 마련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 유치를 위한 공세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순천시만의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유치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오는 14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어서 검토·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는 지자체·민

간기업 등 136곳이 유치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네이버가 지향하는 Green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등 연계 방안 제시 등 순천시만의 특화된 유치전략 마련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순천대학교·순천시·전남도·전남테크노파크·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를 갖고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치전략 마련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 유치를 위한 공세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순천시만의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유치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오는 14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어서 검토·현장 실사 등을 거쳐 9월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안전하고 질 높은 화순학교급식을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7월 31일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학교급식 담당자 등) 학교급식 관계자는 총 130명을 대상으로 2019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2019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맛 있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중독 없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

식을 위하여 실시한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HACCP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업안전체해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치유 운동 등도 안내하여 참석한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원식 교육장은 이날 연수에서 HACCP 적용을 통한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조하고 학교급식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으로 아이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